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VoIP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1] ACMA, "The Australian VoIP Market", 2008. 4.
- [2] \_\_\_\_\_, "Introduction to VoIP", 2007. 10
- [3] Ovum, Wireline Strategy, "Fixed Voice Services: Market Development Scenario", 2007. 8
- [4] 함창용 외, "인터넷전화(VoIP)시장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KISDI 이슈리포트, 2007. 11. 5

---

## 제7차 APEC 통신장관회의 개최 성과 및 향후 대응 방안

---

정보통신협력연구실 APII협력센터 연구원 안상은  
(T. 570-4213, [sangeuna@kisdi.re.kr](mailto:sangeuna@kisdi.re.kr))

### 1. APEC 통신실무그룹(TEL)과 통신장관회의(TELMIN)

APEC이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잇는 첫번째 경제협력체로서 설립되어 약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협력기구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APEC은 장관급 포럼 수준에서 시작하여 정상회의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회원경제체의 증가로 명실공히 다수의 주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가 가입하여 경제·산업 분야별 협력 의제를 토의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매개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방 무역이라는 경제·교역·기술 분야의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APEC 내에는 정보통신의 산업 내 독자적인 성격을 반영하여 APEC 통신실무그룹(APEC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TEL)이 창설되어 1990년부터 활동하여 왔다. TEL의 성과 및 활동 내용은 TEL 회의의 상위체인 APEC 통신장관회의(TELMIN), APEC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 APEC 각료회의(APEC Ministers' Meeting, AMM), APEC 정상회의(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AELM)에 보고되고 상정, 부각되면 치하·독려를 받는 시스템이다.

본고에서는 3년만에 2008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사흘간 개최된 제7차

APEC 통신장관회의(TELMIN7)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APEC 통신장관회의(이하 TELMIN)

APEC TELMIN은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창설된 회의로서 각 회원체 내 정보통신 관련 부처 장관 및 민간 정보통신업계 대표 등이 참가하고 2~3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다. APEC의 의의 상, 역내 무역 투자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APEC이 지역 경제공동체로서 발전해나가기 위한 핵심 사회 요소로서 역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아태정보사회로의 발전을 목표로 회원체 간 정보통신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최상위 회의체이다.

TELMIN의 준비는 TEL에서부터 시작되어, TEL 내 각 운영그룹은 이전 TELMIN 회의의 선언문(Declaration)과 실행계획(Program of Action)을 검토, 그간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취합하여 TEL 의장 명의의 TELMIN 제출용 의장보고서를 작성한다. TEL 활동 점검표(Update of Matrix of TEL Activities)가 첨부된 TEL 의장보고서는 TELMIN 회의의 개최와 함께 TEL 의장의 활동 보고로 제출되게 된다. TELMIN 개최지 장관이 맡게 되는 TELMIN 의장은 TEL 의장의 보고 내용을 검토, 치하하고 세션별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개최 회원체가 주도권을 쥐고 TEL 활동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TELMIN 회의의 대주제 및 소주제를 결정하고 나면, 소주제별로 세션이 나누어져 각 회원체 장관들이 발표를 하게 된다. 세션이 모두 끝나고 나면 선언문 발표가 이어지는데, 선언문에는 향후 APEC 역내 TEL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시 및 비전이 담기게 되고, 이에 따라 TEL 내 운영그룹들은 프로젝트 수행 및 작업 범위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선언문은 실질적으로 통신고위관리회의(TEL Senior Officials' Meeting, TELSOM)가 TELMIN 전 TEL 회의 및 TELMIN 직전 사흘간 TELSOM I, II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해내며, 모든 회원체가 동의할 수 있는 문안으로 작성, 협의가 이루어진다.

TELMIN 회의 중에는 장관 발표와 선언문 선언 이외에도, 회의 중 양자회담을 위한 방안이 준비되어 양자회담 희망 시에는 원하는 회원체 장관과 MOU를 맺는 등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며, 정보통신 분야 신기술을 시연하거나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개최 회원체 IT업체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 3. TELMIN7 방콕 선언문 개요

2008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태국 방콕 두짓 타니 호텔(Dujit Thani Hotel)에서

개최된 제7차 APEC 통신장관회의는 앞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제2차 통신고위관리(TELSOM II) 개최를 필두로 진행되었다. TELSOM에서는 일반적으로 TELMIN 기간 동안 진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실무 국장급 논의 및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번 회의 기간 동안에는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방콕 선언문 초안 최종작업 및 회의 안건 결정 등 주요 주제가 다수 다루어졌다.

선언문 작업은 기존의 TELMIN 선언문 및 실행계획, 첨부문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던 양식에서 탈피, 지난 수년간 업무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기 보다는 장관급에서 보다 실무진들에게 이상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자는 TELSOM 합의가 모아졌다. 이에 대대적 형식 개편 작업에 들어가 TELMIN7 선언문은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미래지향적 선언 내용을 담은 선언문 문서 1부를 작성,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작성된 선언문은 고위관리회의 참석자들의 면밀한 검토 및 문구 수정을 거쳐 채택되었으며, 장관회의 마지막 날 장관들의 공동 선언을 통해 발표되었다.<sup>1)</sup>

우리나라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맞이하여, 선언문 작업 및 장관회의 활동 내용에 우리나라의 방통 융합 노력 및 활동 현황을 최대한 알리고 APEC 회원체와 방통 융합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는 목표 아래 TELSOM II 및 TELMIN7 활동에 임하였다. 이에 따라, 선언문 서언 및 제언에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융합 관련 APEC 회원체 협력 활동 노력을 강조하는 문구를 삽입하였으며, 우리나라가 TELMIN I 개최 이후부터 지속하고 있는 아태 초고속통신망(APII)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Grid 등 최신기술 협력 활동 강화, 정보보호 활동 협력 강화 등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활동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는 선언문안을 채택할 수 있었다. TELMIN7 방콕 선언문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1〉 제7차 APEC 통신장관회의의 방콕 선언문 개요

<p><b>제7차 APEC 통신장관회의(TELMIN 7) 방콕 선언문</b>                  (2008년 4월 23~25일, 태국 방콕)                  “디지털 변영: 도전을 성취로”</p>
<p><b>1. 서 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EC 통신부문 관련 향후 TEL의 활동 방향 설정을 위해 통신장관들이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초, 브루나이 목표의 인터넷 접속 3배수 달성 치하</li> </ul> </li> <li>○ 2007년 APEC 정상회의가 지역 경제의 통합·자유롭고 개방된 시장 및 역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 선언한 바에 대해 APEC 통신장관회의가 적극 받들어 재강조함</li> <li>○ 글로벌 교역 체제의 중요성, APII 및 APIS의 중요성, IPR 보호, 사이버보안 활동 등 강화</li> </ul>

1) TELMIN7 방콕 선언문 [www.apectelmin7.com](http://www.apectelmin7.com) 참조

## 2. 주요 내용

- 보편적 서비스 증진을 위한 도전과 전략
  - APEC 역내 보편적 서비스 제공 달성 시한을 2015년으로 설정
    - 2005년까지 인터넷 접속률 3배 증가·2010년까지 역내 전주민에게 접속 가능케 한다는 브루나이 목표의 1차 목표를 2008년 상반기 달성
  - 효율적 보편적 서비스 전략 채택 지원
- 변화하는 시장환경과 유연한 규제 구조
  - 급속히 변화하는 ICT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책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소비자 와 시장참여자들이 변화하는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급속도로 진행되는 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정책 및 규제 구조의 함의에 대한 공통의 이해 증대 위해 정보 및 관련 경험의 지속적인 공유 장려
  - MRA 통해 통신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음을 주지하는 한편, 아직 MRA를 체결하지 않은 회원경제체들은 MRA를 체결할 것을 장려
- 디지털 변영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T환경 조성
  - 사용자 보호, 특히 취약 계층의 보호와 개인 및 기업 정보 보안에 대한 지원 강조 및 안전하고 신뢰 할 만한 ICT 환경 제공 위한 회원경제체 간 지속적 협력과 정보 및 경험 공유 장려
  - 사이버 위협, 악성 공격, 스팸 대항 위한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
    - 온라인 보안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보안 문화 확립
    - 필수적 기반 시설 및 서비스 등의 전자정보 시스템 보호 강화
- 사이버 보안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사이버 위협은 국제적, 범세계적 문제로 정부, 관련 기업에게 국경을 초월한 협력 필요
    - APEC과 기타 국제 기구간에 협력을 통해 정보보호 관련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기제 확립 필요
    - 컴퓨터긴급대응팀(CERTs),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CSIRTs) 등 활동 강화
- 미래 변영을 위한 ICT역량 강화
  - 농촌 및 벽오지역 공동체의 ICT 활용을 통한 역량 강화 활동 지속
    - 사회-경제적 발전 필요성 충족 및 역량 강화 위한 민-간 지속가능한 협력프로그램 개발 장려
  -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 공유 위해 그리드 컴퓨팅이나 연구망 등과 같은 협력 프로젝트 등 새로운 기술의 시연과 정보 공유 지속 장려
  - 긴급 재해 대비, 조기경보 및 재난 감소, 구조, 인도적 지원 및 복구 활동에 있어 ICT의 필수적 역할 확대 및 타 국제기구 협력 강화

## 3. 제언

- TEL의 ICT 활용을 통해 공공 서비스, 비즈니스 효율, 삶의 질 향상방안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 전 지구적 이슈 연구 장려
- TEL과 타 APEC 회의체간 역량 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 협력 강화
- 디지털 변영에 있어 융합의 중요성을 확인, 규제와 정책을 논의 지속 요청
- 기술혁신, 정보확산, 폭넓은 경제발전 및 변영주도 위한 국제 및 지역 기구, 민간, 사용자, 학계 활동에 TEL의 적극 참여 치하 및 장려
- 정보통신서비스의 활용, 전자상거래, 지적 재산권,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등 관련 타 APEC 회의체와 협력 장려

#### 4. TELMIN7 회의 성과 및 향후 대응 방안

방콕 선언문 개요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APEC을 포함한 세계적 수준의 논의의 장에서 IT 협력은 기존의 IT 인프라 및 인적 역량 강화 활동 지원 등의 국내적 활동을 국제적으로 협력하자는 수준의 논의에서 발전하여,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사이버침해 대응, 아동포르노 등 전세계적 위해(危害) 콘텐츠 방지, 융합 추세 대응 위한 정책 및 규제 일원화 노력 등 논의 주제 자체가 전세계적 수준의 이슈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응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맞아 융합 정책 및 규제 협력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번 TELMIN7에서 방콕 선언문이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 번영에 있어 융합의 중요성을 확인, 규제와 정책 논의 지속을 요청하며 우리나라가 규제 라운드테이블(Regulatory Roundtable) 형식의 IT 장관급 컨퍼런스를 개최,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발표하였다. 무엇보다 전세계적 수준의 기구 및 회의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의제로 발전시켜 이러한 논의를 향후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된 우리의 노력 및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모여있는 APEC 역내 회원체 사이의 경제 및 정보통신 산업의 역내 격차를 인정하고, 이 격차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확대시키려는 목적 하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지속되어온 우리의 각종 프로젝트 활동을 집대성하여 성과 창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